제주발전연구원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도민의 의견을 집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 연구원 내부 포럼과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담론을 한 방향으로 모아 가는 의견수렴 과정이오니, 연구원의 의견을 토대로 보다 발전적인 대안들이 모색되기를 기원합니다.

JDI OPINION 〈제93호〉

제주지역의 청년실업 현황과 대응 방안[1)]

I. 문제 제기

○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되어 온 청년층 고용사정의 악화와 실업 급증은 미취업 청년 개인의 사회생활 부적응, 세대 및 사회통합의 부조화, 그리고 지역간 갈등(중앙 및 지방) 등의 사회문제로 증폭되고 있음.

○ 제주지역의 경우 2008년 현재 청년층 실업률은 4.2%(전체 실업자 6천명 가운데 청년 실업자 2천명으로 전체의 33.3% 차지)로 전국 평균 7.2%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통계청 KOSIS, 2008).

○ 특히 제주지역의 산업구조 취약성(1차산업과 3차 서비스산업의 편중화), 국내 경기의 심각한 침체, 자영업 부문의 경기둔화 등은 산업현장에서 청년층 노동수요의 지속적 감소로 이어져 취업준비생, 임시 · 일용근로자, 청년 인턴, 무급가족종사자 등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본 글은 국가 및 지역수준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사정의 악화로 인한 제주의 청년층 실업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제주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1) 제주지역의 청년실업 현황과 대응 방안 본 내용은 제주발전연구원(2009. 3. 23)의 「제주지역의 청년실업 현황과 대응 방안」JDI OPINION 제93호를 재정리한 것임을 밝혀둠.

II. 제주지역 청년실업의 일반 현황

1. 제주지역 노동시장 특성

○ 제주지역의 고용률은 2003년 이후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한 당분간 이러한 경향을 보일 것임.

○ 제주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67.8%에서 2008년 68.8%로 1.0%포인트 미미한 증가를 보임. 그러나 최근 5년 동안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표 1〉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시장 및 고용 현황

구 분	15세이상 인구(천명)	경제활동 인구(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자 (천명)	비경제활동 인구(천명)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2000	395	268	261	8	127	67.8	3.0	66.1
2001	397	271	264	7	127	68.3	2.6	66.5
2002	401	278	271	6	124	69.3	2.2	67.6
2003	406	286	281	5	120	70.5	1.9	69.2
2004	409	285	278	7	124	69.7	2.5	68.0
2005	415	291	284	7	125	70.0	2.5	68.3
2006	421	295	289	6	126	70.0	2.1	68.5
2007	426	295	289	6	131	69.2	2.1	67.7
2008	429	296	290	6	134	68.8	1.9	67.6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각 년도.

○ 제주지역은 지난해 15세 이상 인구는 429천명으로 2000년에 비해 395천명으로 8.6% 증가하여 계속 소폭으로 증가해 오고 있음. 2000-2008년 사이에 경제활동인구는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래서 경제활동참가율이 2000년 이후 2008년까지 1.0% 포인트 증가함(표 1. 참고)

○ 취업자는 지난해 290천명으로 2000년에 비하여 29천명 증가하였으며, 고용률도 2008년에 67.6%로 2000년에 비해 1.5%포인트 증가하였음. 그러나 2003년 이후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제주지역의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2008년 말 현재 1.9%인데 전국의 실업율 3.1%에 비하여 낮은 편임.

○ 이처럼 제주지역은 제조업 중심(특히 수출)의 산업구조를 가진 타 · 시도에 비하여 심각한 경기불황의 여파에 아직까지 덜 노출되어 고용율과 실업률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제주 청년실업의 특성

가. 제주지역 청년경제활동 변화 추세

○ 2007년 현재 제주지역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15~24세 32.1%, 25~29세 82.7%로 나타나 전국 대비(28.1%, 73.1%)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2. 참고).

○ 2004년 이후 제주지역에서 15~24세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5~29세 청년층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음.

〈표 2〉 전국 및 제주 청년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단위 : %)

구 분	연 령	2004	2005	2006	2007
전 국	계	62.1	62.0	61.9	61.8
	15~24세	34.8	33.3	30.2	28.1
	25~29세	73.3	73.6	73.2	73.0
	30~39세	74.9	74.8	75.5	75.3
	40~49세	79.1	79.1	79.5	79.9
	50~59세	69.4	69.9	70.1	71.2
	60세 이상	37.3	37.4	37.9	38.6
제 주	계	69.7	70.0	70.0	69.2
	15~24세	36.8	36.7	35.9	32.1
	25~29세	76.9	80.6	81.6	82.7
	30~39세	80.0	80.3	80.7	79.8
	40~49세	87.9	87.1	88.4	86.9
	50~59세	80.0	80.7	76.6	78.2
	60세 이상	54.6	53.9	54.7	54.7

자료 : 통계청 KOSIS. 각 년도

나. 제주 청년실업 현황

○ 제주지역 청년층 노동시장 지표의 통계 분포를 보면, 실업률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음(표 3. 참고).

- 지난 9년 동안 청년층 인구 (-17천명), 경제활동인구(-12천명), 취업자 수(-10천명), 경제활동참가율(-1.2%p), 고용률(-1.0%p) 등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제주지역의 청년 실업률이 2000년에 6.5%에서 2008년에 4.2%로 2.3%p 감소하였음. 지난 9년 동안 청년 실업률은 감소 →증가 →감소를 보여 주고 있음.

〈표 3〉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년층 노동시장 지표 현황(15~29세)

구 분	15세이상 인구(천명)	경제활동 인구(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자 (천명)	비경제활동 인구(천명)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2000	121	62	59	4	58	41.7	6.5	40.0
2001	115	59	55	3	58	41.6	5.1	38.5
2002	112	57	54	3	54	40.4	5.3	38.5
2003	109	59	56	3	50	43.7	4.9	41.5
2004	105	54	51	4	51	41.3	6.6	38.5
2005	103	55	51	3	48	43.1	6.1	40.0
2006	102	55	51	3	49	43.4	5.5	41.0
2007	104	53	50	3	51	41.5	5.3	39.0
2008	104	50	49	2	52	40.5	4.2	39.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각 년도.

○ 2008년 현재 전국의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7.2%로 나타났으나 제주 청년의 경우는 4.2%를 차지하여 전국과 비교할 때 3.0%p 정도 낮게 나타났음(표 4. 참고).

○ 제주도의 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이 전국에 비하여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구직포기, 시간제, 무급가족노동 등으로 인한 한시적 고용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제주지역의 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이 전국에 비해서 그렇게 낮다고 볼 수만은 없음.

〈표 4〉 전국 및 제주지역 청년실업율 변화 추세 (단위 : %)

구 분	연 령	2004	2005	2006	2007	2008
전 국	계	3.7	3.7	3.5	3.2	3.2
	15~29세	8.3	8	7.9	7.2	7.2
	30~59세	2.6	2.8	2.5	2.5	2.4
	60세이상	1.2	1.3	1.4	1.4	1.2
제 주	계	2.5	2.5	2.1	2.1	1.9
	15~29세	6.6	6.1	5.5	5.3	4.2
	30~59세	1.7	1.9	1.6	1.6	1.7
	60세이상	0.2	0.5	0.2	0.9	0.2

자료 : 통계청 KOSIS. 각 년도

○ 2004년 이후 전국과 마찬가지로 제주지역의 청년실업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2009년부터는 세계경제 위기의 확산과 국내 경기의 장기적 불황이 예상되는 상황하에서 제주지역의 청년실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타시도의 경기불황은 도내 청년층 취업 기회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도외 지역으로 청년층 취업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임. 대신에 미취업 청년층이 도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업준비를 하거나 구직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나타날 것임.

〈표 5〉 전국 및 제주지역의 연령별 고용형태 비교 (단위 : 천 명, %)

구분	연 령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계	시간제	전일제	계	자영자	고용주	무급 가족종사자
전국	계	15,727.9 (66.6)	1,157.3 (7.4)	14,570.6 (92.6)	7,884.0 (33.4)	4,990.9 (63.3)	1,013.1 (12.9)	1,880.0 (23.8)
	15~19	318.4 (94.8)	130.0 (40.8)	188.4 (59.2)	17.3 (5.2)	10.0 (57.8)	-	7.3 (42.2)
	20~24	1350.0 (94.9)	121.1 (9.0)	1228.9 (91.0)	73.1 (5.1)	44.2 (60.5)	6.5 (8.9)	22.4 (30.6)
	25~29	2557.4 (91.6)	103.1 (4.0)	2454.3 (96.0)	235.7 (8.4)	155.4 (65.9)	31.9 (13.5)	48.4 (20.5)
	30~34	2407.9 (81.7)	100.7 (4.2)	2307.2 (95.8)	538.0 (18.3)	350.2 (65.1)	81.5 (15.1)	106.3 (19.8)
	35~39	2400.9 (73.6)	148.1 (6.2)	2252.8 (93.8)	862.8 (26.4)	532.2 (61.7)	160.0 (18.5)	170.7 (19.8)
	40~44	2121.6 (65.1)	133.5 (6.3)	1988.1 (93.7)	1137.4 (34.9)	664.1 (58.4)	218.3 (19.2)	255.1 (22.4)
	45~49	1793.1 (56.7)	115.0 (6.4)	1678.1 (93.6)	1370.9 (43.3)	830.3 (60.6)	220.2 (16.1)	320.4 (23.4)
	50~54	1239.0 (52.9)	99.5 (8.0)	1139.5 (92.0)	1105.2 (47.1)	694.2 (62.8)	157.7 (14.3)	253.3 (22.9)
	55~59	775.6 (50.4)	71.1 (9.2)	704.5 (90.8)	764.0 (49.6)	504.9 (66.1)	66.5 (8.7)	192.7 (25.2)
	60~64	427.6 (41.4)	47.2 (11.0)	380.4 (89.0)	606.2 (58.6)	392.5 (64.7)	39.1 (6.5)	174.7 (28.8)
	65세이상	336.5 (22.3)	88.1 (26.2)	248.4 (73.8)	1173.2 (77.7)	813.0 (69.3)	31.6 (2.7)	328.7 (28.0)
제주	계	160.8 (54.5)	10.5 (6.5)	150.2 (93.4)	134.5 (45.5)	78.8 (58.6)	14.4 (10.7)	41.3 (30.7)
	15~19	3.1 (96.9)	1.4 (45.2)	1.7 (54.8)	0.2 (6.3)	-	-	0.2 (100)
	20~24	15.9 (96.4)	0.6 (3.8)	15.3 (96.2)	0.6 (3.6)	0.4 (66.7)	-	0.2 (33.3)
	25~29	24.5 (80.6)	0.3 (1.2)	24.2 (98.8)	5.9 (19.4)	2.8 (47.5)	0.7 (11.9)	2.4 (40.7)
	30~34	28.5 (80.1)	1.5 (5.3)	26.9 (94.4)	7.1 (19.9)	3.8 (53.5)	1.1 (15.5)	2.3 (32.4)
	35~39	25.0 (61.3)	1.4 (5.6)	23.6 (94.4)	15.8 (38.7)	9.4 (59.5)	3.5 (22.2)	2.9 (18.4)
	40~44	20.0 (51.3)	0.7 (3.5)	19.3 (96.5)	19.1 (49.0)	11.3 (59.2)	2.7 (14.1)	5.1 (26.7)
	45~49	19.2 (52.9)	0.9 (4.7)	18.4 (95.8)	17.1 (47.1)	9.8 (57.3)	2.4 (14.0)	4.9 (28.7)
	50~54	12.1 (42.6)	0.9 (7.4)	11.1 (91.7)	16.4 (57.7)	8.3 (50.6)	2.2 (13.4)	5.8 (35.4)
	55~59	5.8 (29.6)	0.8 (13.8)	5.0 (86.2)	13.8 (70.4)	7.5 (54.3)	0.7 (5.1)	5.6 (40.6)
	60~64	3.0 (17.8)	0.6 (20.0)	2.4 (80.0)	13.9 (82.2)	9.0 (64.7)	0.8 (5.8)	4.1 (29.5)
	65세이상	3.7 (13.0)	1.3 (35.1)	2.4 (64.9)	24.8 (87.0)	16.5 (66.5)	0.3 (1.2)	7.9 (31.9)

자료: 통계청 KOSIS.

○ 제주지역의 중장년층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전국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5~29세 청년층 임금근로자 비율은 전국의 91.6%에 비하여 아주 낮은 80.6%를 차지하고 있음(표 5. 참고).

○ 특히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전국평균에 비하여 아주 높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전국의 25~29세 청년층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20.5%인데 반하여 제주의 경우는 40.7%를 차지하고 있음. 이처럼 제주지역의 청년층은 무급으로 가족의 일을 돕는 경우가 전국평균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고 있음.

○ 이처럼 제주지역의 청년층은 취업준비생, 무급가족종사자 혹은 구직포기자로 남아 있어서 이들 집단은 청년실업자 층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엄격한 의미에서 실업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음.

다. 제주지역의 대학생 취업 현황

○ 제주지역의 대학생 취업률은 2007년 76.3%에서 2008년에는 79.0%로 상승하여 2.7%p 증가하였음(표 6. 참고).

○ 그러나 정규직에 취업한 비율은 2007년 68.7%에서 2008년에는 61.2%로 무려 7.5%p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비정규직 시간제 일용직이 2007년에 4.7%에서 11.3%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음. 따라서 대학생 취업률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고용지위의 질적 수준은 오히려 나빠졌음을 알 수 있음.

○ 지난 2년 동안(2007-2008년) 제주지역의 대졸자 가운데 취업 제외자인 전문대학의 재입학자(3.6%p 증가)와 군입대자(6.1%p 증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능한 전문대학에 재입학하더라도 취업이 잘 되는 학과에 진학하여 기술을 취득하거나 혹은 잠시 취업이 호전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는 차원에서 군 입대를 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 2007-2008년에 제주지역의 미취업 대학 졸업생 가운데 1/3 정도가 국가고시(공무원 시험 등)를 준비하여 공직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 이상은 다른 부문에 종사하기 위한 취업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제주지역의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졸 취업희망자들은 비정규직 시간제 일용직에라도 일단 취업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임.

○ 그렇지 않으면 대졸 취업희망자들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취업준비(인턴 및 해외 연수, 회사 입사 등) 혹은 국가고시(특히 공무원 시험) 준비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도 큼. 그러나 미취업 대졸 취업 희망자들이 취업 실패 혹은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하는 일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구직단념자 혹은 무임금가족종사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클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구직단념자,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취업준비생(인턴, 해외 연수, 공무원 시험, 회사 입사 등)의 급증은 결국 청년실업률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만성실업 상태로 진입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표 6〉 제주지역의 대학생 취업 관련 현황 (단위: 명, %)

취업현황별		졸업자수	제외자	대상자	취업자	미취업자	취업률
2007년		5,996	336	5,660	4,319	1,232	76.3
2008년		5,884	380	5,504	4,346	1,148	79.0
고용형태별		정규직	정규직대기 발령	비정규직 임시직	비정규직 시간제 일용직	비정규직 무급가족 종사자	자영업
2007	합계 4,319(100.0)	2,965 (68.7)	2,965 (5.8)	249 (17.3)	205 (4.7)	58 (1.3)	93 (2.2)
2008	4,346(100.0)	2,661 (61.2)	337 (7.8)	681 (15.7)	493 (11.3)	66 (1.5)	108 (2.5)
제외자별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군 입대자	취업 불가능자
2007	합계 336(100.0)	9 (2.7)	124 (36.9)	125 (37.2)	17 (5.1)	56 (16.7)	5 (1.4)
2008	380(100.0)	24 (6.3)	133 (35.0)	120 (31.6)	14 (3.7)	86 (22.6)	3 (0.8)
미취업자별		국가고시	진학준비	취업준비	전업주부	기타	
2007	합계 1,232(100.0)	413 (33.5)	40 (3.2)	668 (54.2)	28 (2.3)	83 (6.8)	
2008	1,148(100.0)	345 (30.1)	19 (1.7)	602 (52.4)	47 (4.1)	135 (11.7)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08.

주: 조사기준일은 매년 4월 1일임.

– 졸업자 : 전년도 하반기 및 당해연도 2월 졸업

– 제외자 : 전문대,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진학은 국내 · 외 포함

– 대상자 : 졸업자 가운데 제외자를 뺀 나머지 해당자 수

라. 제주지역 청년층 구직자의 희망 고용형태

○ 제주지역의 청년층 희망 고용형태를 보면 전국에 비하여(4.6%) 비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임금근로자 가운데 전일제 근무 66.7%, 시간제 근무 33.3%로 나타나 전국의 각각 76.7%, 18.7%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났음(표 7. 참고).

○ 그러므로 제주지역 청년층(15~29세) 구직자가 희망하는 고용형태가 전국의 경우보다 비정규직 시간제 임시직 비율이 거의 2배에 이르러 제주지역 청년층의 고용 지위, 고용의 질, 고용 안정에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음.

○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15~29세)에서는 학력별 차이에 상관없이 임금근로자를 희망하지만 그 가운데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는 전일제 임금근로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반면에 고졸 학력자는 모두 시간제 임금근로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7〉 청년구직자의 연령별, 학력별 희망 고용형태(2007) (단위: 천 명, %)

구 분	연령/학력별 구분	평소 구직자수	임금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계	시간제	전일제	
전 국	전체	1,249	90.1	20.0	70.1	9.9
	중졸이하	248	91.9	34.7	56.9	8.1
	고졸	626	89.9	21.6	68.2	10.2
	전문대졸이상	375	89.3	7.7	81.9	10.7
	청년층(15~29세)	459	95.2	18.7	76.7	4.6
	중졸이하	25	100.0	64.0	36.0	0.0
	고졸	226	94.7	25.7	69.0	5.6
	전문대졸이상	208	95.2	5.8	89.9	4.3
제 주	전체	9	100.0	25.0	75.0	0.0
	중졸이하	2	100.0	0.0	100.0	0.0
	고졸	3	100.0	33.3	66.7	0.0
	전문대졸이상	4	100.0	25.0	75.0	0.0
	청년층(15~29세)	3	100.0	33.3	66.7	0.0
	중졸이하	0	0.0	0.0	0.0	0.0
	고졸	1	100.0	100.0	0.0	0.0
	전문대졸이상	2	100.0	0.0	100.0	0.0

자료: 통계청 KOSIS. 2008.
주: 일부 구성비의 합계가 ±100%인 것은 평소구직자 단위의 반올림 때문임.

○ 제주지역의 청년층 구직자(15~29세)들이 희망하는 고용형태가 전국에 비하여 시간제 일용직 임금근로자를 원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그 만큼 제주지역 노동시장 진입을 고려할 때 전일제 임금근로자가 되기가 힘들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음.

○ 따라서 제주지역 청년층에게 정규직 전일제 일자리가 그 만큼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됨. 특히 고졸 학력자는 아예 전일제 임금근로자를 희망하지 않고 있어서 학력 수준에 따른 청년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임.

마. 제주지역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의 한계점

□ 고용없는 성장과 장기적 경기침체로 청년일자리 급격 감소

○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되어온 고용없는 성장과 최근 세계경제의 위기로 청년고용이 좀처럼 해소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음.

□ 제주지역 산업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한 청년고용시장 한계

○ 제주지역 산업구조의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제주의 청년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자원이 농업과 관광 · 서비스산업 부문에 치중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청년인력이 농업부문의 노동시장 진입은 선호하지 않고 있고, 제조업 부문은 수요의 절대부족(2007년 기준 전체 산업의 2.6%)으로 취업이 어렵고, 관광 · 서비스 산업부문도 영세업체(특히 자영업, 도소매업, 여행사 등)의 경기부진 및 폐업 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

□ 노동시장의 유연화 확산으로 고용의 불안정 증대

○ 제주지역에서도 노동시장의 유연화 확산은 비정규직 및 고용불안 증대를 가져와 고용의 질적 저하를 위협하고 있음.

○ 제주지역의 청년층에 임시직 · 시간제 일용직에 많이 종사하는 경향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청년인력의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Miss matching) 문제

○ 청년인력의 공급과 수요 욕구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고용 · 인적자원개발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따라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결과로 고학력 청년인력의 과잉 공급 사태로 만성적 청년실업 지속으로 이어지고 있음.

□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의 부족

○ 제주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인턴사업에 따른 도 자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청년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지원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중앙정부 부처(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부, 중소기업청 등)가 지원하는 사업은 실업자훈련 혹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지만 청년고용촉진사업에 많이 지원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 민간부문에 의한 청년일자리 창출의 어려움

○ 공공부문에서는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아 인턴사업이 추진되어 청년층을 위한 임시직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에서는 청년고용이 쉽게 일어나지 않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업체 인턴사업을 2005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정규직 채용으로 연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미취업 고학력 청년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공급하는데 미흡함.

□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과 취업과의 연계성 미흡

○ 현재 제주지역에서 추진되는 실업자훈련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수강생들의 취업열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일자리 부족으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음.

□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그리고 중·장기 종합대책 미흡

○ 제주지역에는 청년고용, 일자리,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구인·구직 네트워크 체제, DB 구축 등과 같은 청년실업 문제 관련 종합 대책 방안이 미흡함.

○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내 대학 및 전문계 고교 등이 각각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예산과 대책을 가지고 정책적·교육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보다 종합적 측면에서 (가칭)「제주지역의 청년고용촉진 중장기 종합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III.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

1.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과제

○ 정부는 고학력자의 과잉공급, 청년층 일자리 부족,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인프라 부족 등의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여러 부처(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임.

- 청년 친화적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정부지원·민간자율 인턴제 도입, 청년 기업가 육성, 해외 취업 확대, 우량중소기업 발굴 및 추가채용 등 지원 사업
- 직업체험기회 확대 및 산업수요 맞춤 인력양성 사업으로 군 전역자 취업캠프 등 직업체험 확대, 마이스터고 육성, 대학 취업경쟁력 강화, 산업단위 훈련-고용 원스톱 지원 사업
- 인프라 확충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 사업으로 청년 New Start 프로젝트, 청년층 종합취업 포털 확충, 고학력 여성 커리어 개발, Job World를 통한 직업설계 등 지원 사업

○ 정부의 청년고용촉진 대책은 2008년 12월에 종료된「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3년까지 유효기간을 5년간 더 연장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두고자 함.

- 일부 개정안 가운데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조항과 산·학·관 협의기구를 설치해 지역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 등이 포함됨.

○ 또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산·학·관 협의회를 활용하여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관련 부처 및 민간 연구기관(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으로 민관 합동 T/F 팀을 작동시켜 나갈 계획임.

2.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 과제

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현재 추진 중인 정책 사업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 오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추진해 나갈 청년실업 해소 혹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각종 정책 사업은 다음과 같음.

- 고학력 청년인력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및 경력 향상 그리고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치단체 인턴사업, 기업체 인턴사업, 그리고 산 · 학 · 행 인턴사업(2009년 신규사업)
- 2009년부터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위한 '청년 해외 인턴십' 사업
- 자활취업촉진 / 직업적응훈련 / 신규실업자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 새터민 직업훈련 / 영세자영업자능력개발 지원
- 자활직업훈련 /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 2006년부터 시작된 일자리 박람회 개최
- 노동부 인증 7개 사회적기업(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 사회복지법인 마로원, 제주YWCA 사회적일자리지원센터, 유한회사 클린서비스보금자리, 사회복지법인 제주카톨릭 일배움터, 사회복지법인 청수아리랑 김치, 유한회사 행복나눔푸드) 지원 사업

나. 향후 청년 고용촉진정책의 방향 및 과제

□ 맞춤형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취업 제고

○ 도내 대학들이 청년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체 (혹은 사업체)의 수요 욕구에 맞는 위한 수요자 중심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 운영 및 교과과정 개편 노력 필요

○ 전문계 고교, 도내 대학, 민간 직업훈련기관, 기업체간 네트워킹 강화

□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청년 고용 · 인적자원개발 종합 대책

○ 제주형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가칭)「제주지역의 청년고용촉진 중장기 종합 대책」이 필요함.

□ 제주지역에 투자 · 기업유치의 활성화와 청년고용 연계 강화

○ 외부로부터 투자 및 기업유치 증대

○ 도내 우량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 외부 투자기업으로부터 고용 · 인적자원개발 계획서 제출 의무화

□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지원 확대

○ 제주지역의 핵심전략산업(친환경 1차산업, 관광, 교육, 의료, 첨단산업) 부문별 고용 · 인적자원 개발 전략 수립 필요

○ 특히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교육, 의료, IT, BT, CT 등)의 청년인력 수급 전략 수립

□ 청년고용 · 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과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

○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 직업훈련 및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도내「지자체-공공기관-민간직업훈련기관-대학-기업체-지역경제단체 등」의 협력 체제 강화

□ 청년고용 · 인적자원개발의 총괄 조정 기구의 운영

○ 청년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고용지원 및 청년실업 문제 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기획 · 조정하는 총괄 조정 기구 필요

○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고용 촉진을 극대화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체제 구축

□ 중앙정부의 청년고용촉진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 정부의「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의한 청년고용촉진 대책과 연계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특히 청년 인턴제, 청년 기업가 육성, 해외취업,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 고용 정보 인프라 확충 등과 같은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에 적극 관심을 갖고 예산 지원 확보 노력

□ 취약계층의 청년에게 고용지원 강화

○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 우선 제공

□ 제주지역의 중소기업 유휴일자리 충원 지원 강화

○ 제주지역의 우량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근로복지수준 제고, 중소기업의 사회적 인식 개선, 우량 중소기업 홍보 확산,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구성,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제공, 중소기업 전문인력 채용 지원,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 지원, 교대제 전환 지원금 제공, 장기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의 중앙정부 지원 사업의 적극 활용

□ 해외 취업 연수 및 취업기반 구축

○ 글로벌 인재양성과 현장실무 체험 증진을 위한 해외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확충

○ 도내 대학들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제주청년 해외연수 및 취업 관련 정보수집 및 교류,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해외 취업 멘토링제 등을 총괄하는 인프라 구축 노력

□ 제주지역의 산 · 학 · 연 · 행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청년고용 지원 활성화

○ 청년일자리,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고용촉진 등의 주요 사업의 시너지 효과창출을 위해 산 ·

학 · 연 · 행 협력체제 구축 필요

○ 청년들의 취업욕구 및 진로 선택이 고려된 고용지원 시스템 운영 및 지원

□ 도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

○ 도내 대학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 갖춘 인재양성 · 배분 · 활용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노력

○ 도내 대학은 우수 교수 초빙, 우수 학생 모집, 교과과정의 글로벌화 재편, 연구 · 교육시설의 확충, 맞춤형 학생 진로 및 취업지도 프로그램 운영 등에 과감한 투자 및 지원

□ 제주지역의 청년고용 · 인적자원 종합정보망 구축

○ 제주 청년층의 다양한 개인별 특성(연령, 학력, 거주지역, 혼인유무, 직업경력, 기술 및 능력수준, 계층, 가족관계, 직업유형, 종사자지위, 임금수준, 평생학습, 취업선호 기업체, 미래취업열망, 실업상태 등)에 따른 DB 종합정보망 구축 사업 필요

○ 도내 전문계 고등학교 및 대학 이 중심이 되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그리고 제주통계사무소 등의 행정적 지원 필요

□ 제주지역의 청년기업가 육성 지원

○ 창업희망 청년이나 혹은 가업을 계승하여 향후 사업 운영 계획을 가진 청년 예비기업가 인력에 대한 컨설팅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

□ 지역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연구기능 확충

○ 제주지역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전망에 대한 지속적 조사 및 분석
○ 제주지역의 노동시장 구조 및 변화 관련 연구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다.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단기적 실천 과제

□ 고학력 청년연수 인턴제와 일자리 연계 강화

○ 기업체 인턴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업 지원 강화

□ 장기 청년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원

○ 중앙정부에서 지원 · 실시하는 실업자 직업훈련교육과 더불어 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한 직업훈련 및 전문교육의 질적 개선

□ (가칭)「한라산 생태숲 가꾸기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한라산의 산림 파괴, 훼손, 불법 채취, 입산금지, 산불예방 등의 문제 해결

○ 저소득 · 저학력 청년층에게 공공근로사업 형태로 장기적 일자리 제공

□ 도외 우량 중소기업 유치단 운영 및 지원

○ 도외 IT · BT 분야 우량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유치단 상시 운영 및 지원

□ 타시 · 도 우량 중소기업「제주지역 일자리박람회」참가 확대 지원

○ 매년 개최하는「제주지역 일자리박람회」에 타시 · 도의 우량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도내 대학 취업관계자 네트워크 강화 지원 사업

○ 도내 대학 취업관계자 간에 다양한 취업정보 교류와 협력 체제 구축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강화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역아동센터의 재정 및 인력지원을 통하여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 및 고학력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 제고

□ 청년고용 · 인력수급 조사 지원 사업

○ 제주지역의 청년인적자원 및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

□ 청년고용 · 인적자원개발 총괄 조정기구 신설 혹은 재편

○ 청년인적자원개발, 직업훈련, 일자리창출 및 고용지원 등을 총괄 기획 · 집행 · 평가해 나갈 전담부서 신설 혹은 기존 부서 기능 강화

□ 농어촌 지역 청년 리더 양성 사업

○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마을활력 · 재생을 위한 청년 리더 양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청년 예비경영인 창업지원 컨설팅 교육사업

○ 청년 예비경영인 창업을 위한 컨설팅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 운영

□ 청년 고용 · 인적자원의 정보 DB 구축 사업

○ 제주지역의 청년층 고용 · 인적자원의 통계 및 DB 구축

참 • 고 • 자 • 료

제주발전연구원(2009. 3. 23)의 「제주지역의 청년실업 현황과 대응 방안」JDI OPINION 제93호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08.
통계청, KOSIS. 각 년도.